

52권 6호(p. 582-597)의 “한국어판 난임 낙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김미옥·반민경. p. 596 Appendix “사회적 위축”(문항 18~21번)과 “가족낙인”(문항 22~25번) 표기오류를 정정합니다.

p. 596 Appendix

Appendix 1. 한국어판 난임 낙인 측정 도구(Korean Version of Infertility Stigma Scale, K-ISS)

요인	문항 번호	수정 전(before correction)	수정 후(after correction)
사회적 위축	18	사람들이 난임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는 난임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한다.
	19	사람들이 내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멀리할까봐 걱정된다.	난임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
	20	사람들이 내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상태를 숨기려고 노력한다.
	21	사람들이 내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비웃을까봐 걱정된다.	나는 난임이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지 못하도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않을 것이다.
가족낙인	22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는 불완전한 여성처럼 느껴진다.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된다.
	23	난임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뒤에서 나를 판단하고 있다고 느낀다.	남편이 나와 이혼할까 두렵다.
	24	난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
	25	사람들이 난임 때문에 나를 다르게 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알게되면 재혼에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DOI of original article: <https://doi.org/10.4040/jkan.22068>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n, Minkyung

Department of Nursing, Dongju University, 16, Sari-ro, 55beon-gil, Saha-gu, Busan 49318, Korea

Tel: +82-51-200-3267 Fax: +82-51-200-1576 E-mail: vanmin@dongj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